



대기업을 최저가입찰제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악화

중소기업청 제공

작년부터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도로 적정수준의 영업이익을 보고있는 중소기업은 6.8%에 지나지 않고, 많은 중소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소기업청은 3.29일 금년 1~2월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행되는 최저가입찰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.

이번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로는

- ▶ 최저가입찰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정수준 영업이익 발생이 6.8%, 적자를 감수하고 납품한 경우는 55.9%, 대기업과 협력유지 차원 납품이 27.7%로 조사되었으며,
- ▶ 납품가 산정시 대기업의 사전 단가인하 요구에 의해 입찰에 응하는 비율이 27%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대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적절한 원가분석요구가 44%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,
- ▶ 납품주기는 대기업이 재고부담 완화가 가능한 일단위 주문이 60.1%, 주단위가 15.1%로 납품주기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최저가입찰로 경영악화시 중소기업의 해결방안으로는 기업규모 축소 21%, 해외 공장이전 20%, 기업스스로 자구책(기술개발, 컨설팅, 판로개척)마련이 58%로 조사되었으며,
- ▶ 과거 60~70%를 차지하던 계획구매가 43%로 감소하고 최저가입찰구매가 12%, 혼합구매(계획+최저가)가 13%로 구매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설문조사에는 중소기업 84개사, 대기업 9개사가 참여하였다.

※ 최저가입찰제란 대기업이 국·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제시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.

이 조사결과 대기업의 최저가입찰제가 점차 도입 확대될 전망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